영광군 인구 5년전 5만 3천명 회복

주민등록 인구 5만3033명 기록
1년 전 동기 대비 1693명 증가
결혼·출산·양육 지원 정책 주효

장세일(왼쪽) 영광군수가 5만3000번째 전입자인 영광읍 전입자 김세원씨에게 환영의 인사를 하고 있다. 〈영광군 제공〉

영광군이 인구 유입을 촉진해 주민등록 인구가 5만3000명을 넘는 등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변모해 가고 있다.

영광군은 지난 7월 31일 기준 주민등록 인구가 5만3033명을 기록하면서 인구 5만3000명 선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같은 기간 5만1340명 대비 1693명 증가한 수치다.

특히 영광군이 5년 전(2020년 5만3099명) 인구 수준을 회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지역사회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긍정적인 신호가 되고 있다.

영광군은 인구 5만3000명 돌파를 기념해 장세일 군수가 5만3000번째 전입자인 영광읍 전입자 김세원(44)씨에게 꽃다발과 기념품을 전달하고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전했다.

김 씨는 "자연환경과 생활 인프라 등을 고려해 새로운 보금자리로 영광을 선택했다"라며 "환영을 받으니 기쁘고 지역에 잘 정착해 주변 이웃들과도 즐겁게 지내고 싶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영광군은 이 같은 전입 인구 증가는 총 42개 사업에 265억원을 투입해 결혼·출산·양육 지원을 강화한 정책이 주효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10·16재보궐선거로 당선된 장세일 군수가 햇빛과 바람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이익공유제를 통한 '영광형 기본소득' 지급 추진 정책도 촉진제가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인구 5만3000명 돌파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 영광군이 사람이 모이고 삶이 이어지는 도시로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강조한 후 "앞으로도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고 군민의 삶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누구나 환영받는 영광군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실내 스포츠 체험시설 목포플레이파크 8일 개장

전남 첫 스포츠형 실내 테마파크

목포플레이파크.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층과 가족 단위 방문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실내 체험시설 '목포플레이파크'가 오는 8일 정식 개장한다.

전남도 최초의 스포츠형 실내 테마파크인 목포플레이파크는 수직슬라이드, 디자인암벽, 점핑타워, 하늘오르기, 짚잭, 스카이트레일, 트램폴린 등 7개 테마, 14종의 이색 체험시설을 갖추고 있다.

방문객은 나이와 관계없이 체력과 용기를 시험해 볼 수 있다. 도심 속 실내 공간에 조성돼 비나 눈이 오는 날에도 제약 없이 스릴 넘치는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다.

운영시간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매주 월요일은 정기 휴무일이다.

이용 요금은 어린이 1만2000원, 청소년 및 성인 1만7000원이며, 목포시민은 2000원이 할인된다. 신분증 등 거주 증빙자료를 지참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용 후기 작성이나 3개월 내 재방문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 추가 할인도 가능하다.

안전한 시설 이용을 위해 키 100㎝ 미만 또는 몸무게 100㎏ 이상인 경우 시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일부 시설은 반드시 양말, 운동화 등을 착용해야 한다.

목포시 관계자는 "전남 최초의 스포츠형 실내 테마파크인 목포플레이파크가 가족, 친구들과 함께 특별한 체험과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2개월 더 빨리…해남 햇고구마 '진율미' 수확

국내 개발 밤고구마 품종

해남군 햇고구마 진율미.

해남에서 재배 중인 햇고구마 '진율미' 수확이 본격 시작됐다.

부드러운 식감과 뛰어난 당도를 자랑하는 '진율미'는 국내에서 개발된 밤고구마 품종이다. 최근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고구마 주산지 해남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다.

일반 품종보다 2개월 정도 빠른 시기에 조기 수확이 가능해 여름철 프리미엄 농산물 시장을 겨냥한 전략 품종으로도 주목받는다.

지난 2006년 지리적표시제 제42호로 등록돼 전국 어디서든 '해남고구마'라는 브랜드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최근에는 고구마를 활용한 빵, 말랭이, 칩, 수프 등 다양한 가공제품으로도 상품화가 확대되고 있다.

해남군은 직영 농산물 온라인 쇼핑몰 '해남미소'를 통해 햇고구마를 포함한 지역 대표 농특산물을 전국 소비자에게 직배송하고 있다.

현재 햇고구마 시세는 10㎏ 한 박스 기준 3만원 선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유통채널 다각화와 가공산업 육성도 함께 추진해 농가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영산강유역환경청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려

목포시 "당연한 조치 환영"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영산강유역환경청(영산강환경청)의 사업계획 반려에 목포시가 지난 1일 "당연한 조치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목포시는 이날 "반려 처분은 사업계획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며 "앞으로도 해당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인허가 관청인 영산강환경청은 최근 사업계획서의 설계자료 불일치, 부실한 계획, 처리범위의 과도한 확장 등을 이유로 사업계획을 반려했다.

목포시 대양산단 인근에 추진 중인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계획 초기부터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이 제기돼 왔다. 목포시도 관련 부서 검토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영산강환경청에 '부적정' 의견을 공식 통보했다.

시는 향후 사업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하거나 이번 반려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에도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환경 보전과 시민 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포함한 모든 환경유해 시설에 대해 엄정하고 신중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완도군 해양 레저 스포츠 요트 체험.

완도 신지명사십리서 해양레저스포츠 즐겨요

14일까지 무료 체험 프로그램

완도군이 오는 14일까지 신지 명사십리 일원에서 '무료 해양 레저 스포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체험 프로그램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대상은 ▲래프팅(6인) ▲카약(1인) ▲카약(2인) ▲서프 보드 ▲딩기 요트 ▲세일링 요트 ▲크루즈 요트 등이다. 서프 보드는 경력자에 한 해 이용할 수 있고 참가자들은 심폐소생술과 해상 안전교육을 들어야 한다.

체험 프로그램 운영 시간은 화요일~일요일 오전 10~낮 12시, 오후 1시30분~5시까지다. 월요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프로그램 참가는 선착순 모집이다. 요트 체험은 명사방파제 인근, 무동력 레저 기구는 명사십리 이벤트 광장에서 신청을 받는다.

완도군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주민과 관광객을 위해 무료 체험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시원한 바닷가에서 다양한 해양레저 스포츠를 즐겨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영암 한우 14일까지 '남도장터'서 30% 할인

한우농가 기살리기 기획전

영암군이 오는 14일까지 전남도 공식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에서 '영암 한우농가 氣(기)살리기 기획전'을 개최한다.

남도장터에 선보일 영암 한우는 영암축협하나로마트와 삼호명품관에서 내놓은 20종이다.

1++등급 프리미엄 구이용 선물세트 900g, 1++등급 치마·업진·부채·갈비·살치 각 300g 등이다.

1인당 5매의 30% 할인권을 받을 수 있는데 최대 할인액은 25만 원까지다.

영암군은 이번 기획전 이외에도 다양한 온·오프라인 판촉행사로 지역 농축산물 유통 통로를 넓히고 소비자와 접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건강한 영암 한우를 경제적 가격에 구입하길 바란다"며 "무더위에도 고품질 한우를 생산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축산농가도 응원바란다"라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